논어 1편 학이 15장 · 원문·풀이

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子貢曰：「《詩》云：『如切如磋，如琢如磨。』其斯之謂與？」子曰：「賜也，始可與言《詩》已矣！告諸往而知來者。」

독음 · 자공왈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여차 여탁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여언시이의 고저왕이지래자

쉬운 풀이(요약) ·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좋다. 그보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이 낫다. 자공은 자르고 갈아 다듬듯 끊임없이 수양한다는 뜻을 깨닫는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貢 바칠 공 공 / 曰 가로 왈 / 貧 가난할 빈 빈

而 말이을 이 / 無 없을 무 무 / 諂 아첨할 첨 첨 / 富 가멸 부 부

驕 교만할 교 교 / 何 어찌 하 하 / 如 같을 여 여 / 可 옳을 가 가

也 어조사 야 / 未 아닐 미 미 / 若 같을 약 약 / 樂 즐길 락

好 좋을 호 / 禮 예도 례 례 / 者 놈 자 / 詩 귀글 시 시

云 이를 운 운 / 切 끊을 절 절 / 磋 윤낼 차 차 / 琢 옥 쪼을 탁 탁

磨 갈 마 마 / 其 그 기 / 斯 이 사 사 / 之 갈 지

謂 고할 위 위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賜 줄 사 사 / 始 비로소 시 시

言 말씀 언 언 / 已 이미 이 이 / 矣 어조사 의 / 告 알릴 고

諸 모든 제 제 / 往 갈 왕 왕 / 知 알 지 / 來 올 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